



[해설] 삼성 '新경영선언' 28주년 총수 부재에 정체 우려 03



Economy

↑ 코스피	3252.12 (+12.04)	↓ 코스닥	985.86 (-1.72)
↓ 금리 (미국 3년)	1.201 (-0.019)	↓ 환율 (원/달러)	1112.90 (-3.60) (7일)

<증권사 별 상품권 종류>

증권사명	상품권종	상품권 판매처	투자 가능 상품
한국투자	금융상품권 3만원권, 5만원권	11번가 G마켓 옥션 g9	모든 금융상품
KB	금융투자상품쿠폰 1만원권, 2만원권	11번가 G마켓 옥션 g9 롯데온	국내 주식
이베스트투자	주식상품권 5만원권	11번가	국내해외 주식
신한금융	스타콘 4100원~5만원권	카카오톡 선물하기	해외 주식

합리적 금융생활 뜬다 증권사 주식쿠폰 불티

2030 주식 열풍에 신풍속도

금융상품권, 주식쿠폰 등이 온라인 쇼핑물 인기상품 순위에 올랐다. 카드사 할인과 온라인 쇼핑물 자체 쿠폰을 활용해 금융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거래에 친숙한 2030세대가 보다 쉽게 주식을 접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판매하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11번가 이(e)쿠폰 베스트 상위 품목에 한국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상품권 이름이 올려져 있다. 1인당 구매 가능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인기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이커머스 업체와 제휴를 맺고 금융상품권 또는 주식쿠폰 등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해당 서비스들은 금융위원회 혁신서비스로 지정돼 있다.

업계, 금융상품권·주식쿠폰 선배 한국투자증권, 1993억원 어치 판매 KB증권, 10% 할인 이벤트로 '완판' 이베스트증권, 상품권 5% 캐쉬백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3월 가장 먼저 온라인 금융상품권을 출시했다. '금융 습관을 선물하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친구에게 금융상품권을 간편하게 선물하고 등록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만원권, 5만원권 총 2가지로 출시됐으며, 5만원권을 기준으로 30일간 최대 2매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선물을 통한 상품권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품권 등록은 30일에 50만원까지 가능하다.

11번가·G마켓·옥션·g9 등에서 구입한 뒤 한국투자증권 앱을 통해 상품권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추가연계증권(ELS), 발행어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모든 금

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5월 초까지 416만장, 총 1993억원어치의 금융상품권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됐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위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올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며 "서비스 연장 신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KB증권은 지난 3월 11번가·G마켓·옥션·g9·롯데온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1만원권, 2만원권 국내주식쿠폰을 출시했다. 오픈 기념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자 한달 치 예상 물량이 이를 만에 동나버리기도 했다.

KB증권은 국내주식쿠폰 판매를 시작으로 펀드나 채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카테고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쿠폰 권종도 기존 2만원에서 5000원~5만원으로 다양화시킨다.

지난 5월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국내·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상품권을 출시했다. 현재 11번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5% 캐쉬백을 해준다.

이음주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재휴마케팅팀장은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20·30세대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자산형성과 건전한 투자 습관 배양이라는 관점에서 주식 상품권을 출시하게 됐다"며 "이커머스에 친숙하면서 투자에 관심 있는 소비자가 쉽게 주식을 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해외주식 상품권인 스타콘을 판매하고 있다. 스타콘은 현재 넷플릭스, 아마존, 테슬라, 애플, 스타벅스, 디즈니 등 미국 우량주식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0.01주, 0.02주 등 소수점 단위로 매수할 수 있어 원하는 종목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ikyung96@metroseoul.co.kr

식품업계 'ESG 광풍', 경영권도 흔들다

'도덕성 논란' 구본성 부회장 해임 '불가리스 파문' 흥원식 회장 사퇴

친환경,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ESG 경영' 열풍이 최근 식품업계의 머리를 흔들고 있다. 80여년 된 범 LG가(家) 장자승계 원칙이 깨지는가 하면, 57년 남양유업 오너경영이 무너지기도 했다. ESG경영 트렌드 속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겨 보게 하는 사건들이 식품업계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지난 4일 주주총회를 열고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셋째딸 구 신임 대표가 제안했던 신규이사 선임안, 보수총액 한도 제한안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곧바로 열린 이사회에선 구본성 전 부회장을 해



해임된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신임 아워홈 대표이사.

임을 승인하고 구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구 전 대표를 비롯해 장녀 구미현씨, 차녀 구명진씨 등 아워홈 세 자매는 약 59%에 달하는 지분율을 앞세워 38.56%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구본성 부회장을 경영 2선으로 밀어냈다. 아워홈은 2000년 LG그룹으로부터 계열에서 분리된 사실상 별도 회사다.



하지만 LG그룹 창업주 고 구인회 회장의 셋째 아들 구자학 회장이 설립한 회사라는 점에서 범 LG가로 구분된다. LG그룹의 구씨 가문은 장남이 경영권을 물려받으면 형제들이 일부 계열사에서 분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분쟁의 여지를 원천 차단해왔다. 80여년간 이어온 LG가의 장자승계 원칙은 경영권을 손에 쥔 구지은 아워홈 대표로 인해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

구본성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밀려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구 부회장에게 휩싸인 도덕성 논란이다. 앞서 지난 3일 보복운전으로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 부회장은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면에 계속>

/조효정 기자 princess@



코스피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전 거래일(3240.08)보다 12.04포인트(0.37%) 오른 3252.12에 거래를 마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지수가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난달 10일(3249.30)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987.58)보다 1.72포인트(0.17%) 내린 985.86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16.5원)보다 3.6원 내린 1112.9원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3240.08)보다 12.04포인트(0.37%) 오른 3252.12에 거래를 마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지수가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난달 10일(3249.30)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987.58)보다 1.72포인트(0.17%) 내린 985.86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16.5원)보다 3.6원 내린 1112.9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이베이 본입찰, 신세계 vs 롯데 '2파전'

신세계, 네이버와 연합 참여 MBK·SKT은 본입찰 불참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3위 이베이코리아 매각 본입찰의 막이 오른 가운데, 신세계와 롯데 2파전으로 압축됐다.

7일 IB업계에 따르면 이날 매각주관사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진행한 본입찰에 신세계그룹(신세계)과 롯데그룹 유통계열사 롯데쇼핑(롯데)이 입찰제안서를 내고 참전했다.

특히 신세계의 경우 네이버와 손잡고 본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가 써낸 인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예비입찰에는 신세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각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G마켓과 옥션, G9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서 약 17조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도 네이버(18%) 쿠팡(13%)에 이어 3위(12%)다. 신세계와 롯데 어디든 이베이코리아를 품기만 하면 단숨에 점유율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이커머스 기업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신세계와 롯데는 각각 온라인통합몰 'SSG닷컴'과 '롯데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거래액은 10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장 점유율도 각각 3%, 5%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7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주말 효과로 400명대
▲ 백신 1차접종 2958명, 국민 14.8%... 사망 2건 조사중 /사진 뉴시스

▲ 의협 "백신 접종 후 발열, 타이레놀 없다면 다른 진통제 복용을"
▲ 輿 의원 91명 "지도부 선출에 권리당원 권한 대폭 늘리자"



▲ 경찰청으로 간 국민의힘... "이용구 수사, 통과 교감했다"
▲ '강제징용' 피해자들, 대기업 16곳에 손배소 각하 /사진 뉴시스